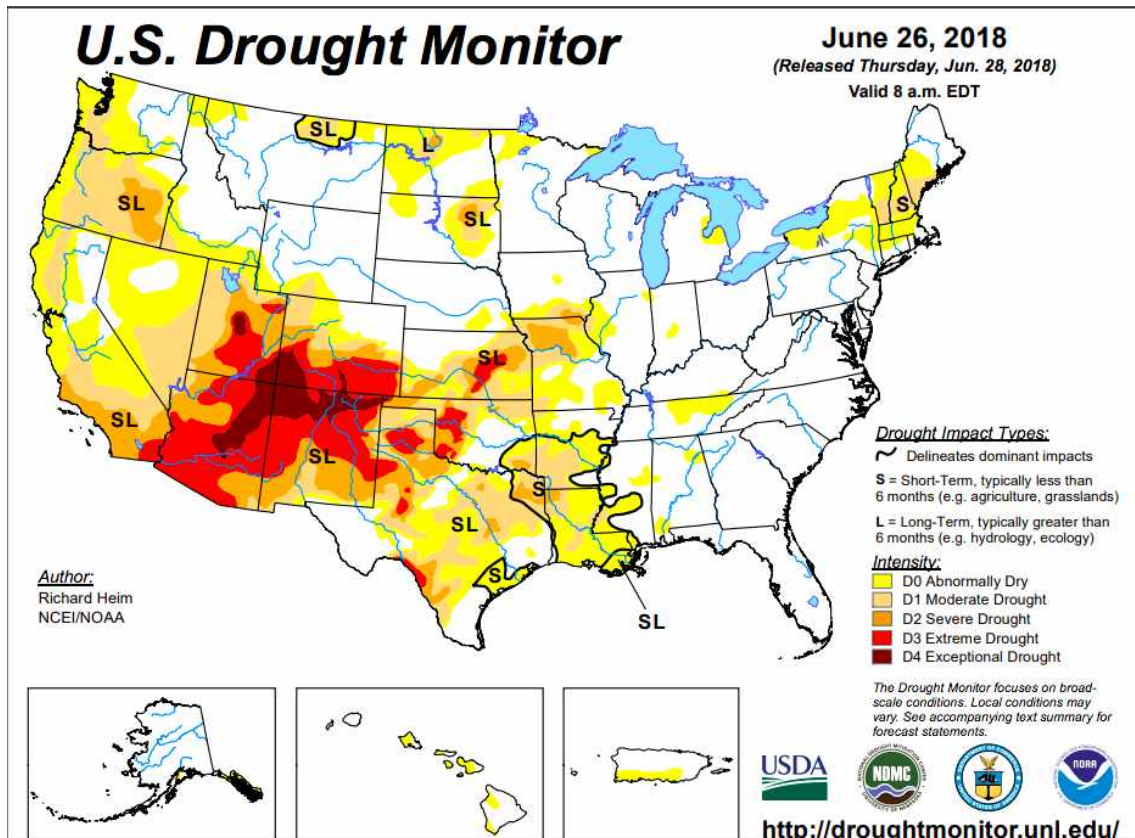


7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7)

□ 미국 기후 현황(6/24~6/30)

중부와 동부의 많은 지역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비가 내렸다. 테네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오대호 인근 지역과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다. 한편, 서부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6월의 마지막 날에 큰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평년에 비해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및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많이 더운 날씨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와 네브라스카 남부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 이상 올랐고, 중서부 일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95°F까지 오르내렸다. 플로리다 남부와 북동부, 북서부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농업 현황 요약(6/25~7/1)

네브라스카 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6인치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아이오와, 와이오밍 등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한편, 플로리다와 메인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았고, 텍사스와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이상 높은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반면, 오대호 인근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 세계 기후 현황(6/24~6/30)

■ 유럽: 동부 유럽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서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스페인, 독일 및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스페인 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주 후반에 5~45mm 내외의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다. 스페인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8°C까지 올랐지만, 현재까지는 옥수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동부 유럽 일대와 그리스, 발칸반도 등에서는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및 면화 등의 수확량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다.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북서부 등에서는 지난 60일 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봄에 파종을 마친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러시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10~8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남동부와 북서부 일대에서는 이번 비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러시아 남부의 Krasnodar, Stavropol 등에서는 주 초반 낮 최고기온이 37°C에 이르는 날씨가 각각 4일과 5일 연속으로 이어졌고, 옥수수의 수확량은 평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Volga District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5~38°C에 이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 일대의 옥수수와 대두 재배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이번 비는 Heilongjiang, Jilin, 내몽고 등에 집중되었으며, 강우량은 25mm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Liaoning에서는 누적 강우량이 여전히 평년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북부 평원지역에서는 주 초반 10~75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뒤이어 찾아온 더위로 낮 최고기온이 40°C 가까이 오르는 등 더운 날씨를 보였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50~1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한반도 북부 일대와 일본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동부 일대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특히 New South Wales 북부와 Queensland 남부 지역의 농작물 재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호주 일대와 Victoria 북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La Pampa, Buenos Aires 북부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Chaco, Formosa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La Pampa, Buenos Aires 남부 등에서는 주 초반에는 밤 기온이 영하 5°C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낮 최고기온이 10°C 후반까지 오르내렸다. 한편, Formosa 및 주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8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69%, 99%를 기록했다. 한편, 겨울밀 파종률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Parana 남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93%, Rio Grande do Sul 6월 28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 Tocantins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내렸다. Mato Grosso의 6월 29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21%였다.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